

유교유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복지 구현에 대한 연구 - 유교건물을 중심으로 -

오승하*, 조원섭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ourism Culture Welfare by Using Confucius Heritage - Based on Confucian Buildings -

Seung-ha Oh*, Won-seob Jo

요약 본 연구는 유교유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복지 구현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4년 6월13일부터 11월7일까지 영월군의 향교, 서원, 누정을 대상으로 실태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척도문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건물소유자와 관리자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과학적 탐구과정을 거쳐서 판단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역사적 배경은 문화재적 가치로 매우 귀중한 지역의 관광 및 문화복지 자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향교와 서원은 전통유교문화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누정건축에서는 보기 드문 특색을 나타내고 있어 특화된 사회적 관광 자원화가 요구된다. 셋째, 유교유산에 대한 관광문화복지 자원화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 파악 되므로 이에 대한 마케팅강화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유교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유교문화와 현대문화를 아우르는 디지털관광으로의 발상전환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문화복지 정책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realization of tourism culture welfare by using Confucian heritage. From June 13 to November 7, 2014, site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hyanggo (hyanggo: Confucian temple and school to teach students in Joseon Dynasty period), seowon (seowon: a memorial hall for Confucianist services to honor distinguished scholars and statesmen) and nujung (nujung: outdoor pavilion or gazebo) located in Yeongwol -gun. Questionnaire pertaining to sit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for the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was used to collect necessary data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was performed for analysis. As a result, the historical background was found to be culturally valuable asset for both region's tourism and culture welfare. Secondly, hyanggyo and seowon were found to exhibit traditional Confucius cultural form, while nujung exhibited a rare architectural trait. Hence it seems necessary to develop a different social tourism resource specialized for nujung. Thirdly, the rendering of Confucius heritages to tourism culture welfare resources thus far seems to be insufficient; henc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marketing programs will be necessary.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require succession and modern reinterpretation of Confucian heritages for further development into digital tourism that will encompass Confucian culture and today's culture. Furthermore, studies of the tourism culture welfare policies that will promote the co-existence with the region will be needed.

Key Words : Confucius heritage, tourism, culture welfare, hyanggo, seowon, nujung, building.

This paper was performed for research task on academic service of Yeongwol district, 2013, (extract)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t Therapy at Saekyung College(sunga6996@naver.com)

Received January 08, 2016

Revised January 15, 2016

Accepted January 22,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영월은 동강과 서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천혜의 관광자원, 역사적 유물, 박물관이 분포되어 있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 역사, 문화예술 등이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의 창조도시이다. 이러한 역사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온 이곳에는 문화유산과 자연관광자원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다. 또한,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는 영월은 우리전통문화인 유교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산으로는 향교, 서원, 사우, 누정, 정려, 재실, 가묘건축 등을 들 수 있다[1].

유교는 인륜의 질서를 중요시하고 개인을 그 속에 포함시켜 사람이 도를 지키는데 있다고 하여 윤리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선조에는 충효를 중심으로 인륜을 내세워 군신, 가족사이의 위계적 질서규범을 중요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였다. 부자사이의 친애, 군신사이의 의리, 부부사이의 분별, 장유사이의 차서, 봉우사이의 신의 등 오륜 그리고 주자가례와 같은 의식적 윤리규범과 소학과 같은 행동강령을 기본원리로 하는 인간관계의 위계질서를 강조하였다[2].

그러나 현대인의 삶의 기준은 과거 의·식·주 중심의 생활에서 문화적·정신적 풍요를 원하는 사회로 변화되면서 그 기준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중관광은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인간 삶의 기본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복지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 따라서 우리의 전통윤리규범이 사상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향교, 서원, 누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 주요구성건물과 특징, 유교건물을 이용한 관광 및 문화복지 자원으로 지역과 연계한 상생발전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다.

이와 같은 유교문화유산에 대하여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전통역사 문화시설로의 기본방향을 전환을 통하여 관광객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존·보완·개선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연구는 다음[4,5,6,7]과 같다.

김운우[4]는 복지관광이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축적을 위해서 복지관광을 통한 체험활동이 중요하며, 그러한 체험이 소외계층의 삶의 질과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는 정부의 복지관광정책이 저소득층에게 문화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복지관광이 저소득층에게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협력적인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권경임[5]은 한국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으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이로 인해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인간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템플스테이를 복지관광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의미는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화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지의 문화화 내지 문화의 복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결과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서 템플스테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문화복지의 지평을 확대하고 정신문화복지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신정식[6]은 복지관광 증진에 대하여 관광사업의 전략적 발전방안에서 복지관광증진을 위한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관광사업의 범위와 시스템고찰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의미는 복지관광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공공단체 등이 위탁시설을 관광소외계층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과 카지노업의 사업장변경허가를 제안하였으며, 관광호텔부가세영세율의 영구적용과 관광문화숙박단지의 조성 그리고

국제관광객에 대한 안전·보호정책 강화와 전략적 해외홍보 및 마케팅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현황 및 전망을 토대로 관광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엄완용[7]은 복지관광 참가대상자의 참가동기와 만족도의 관계에서 복지관광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복지관광운영 방안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 결과는 복지관광 참가 대상자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과 한부모 가족 사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관광 참가동기 요인 중 교육성 요인에 대해서만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여행바우처라는 복지관광의 현실적인 주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선행연구의 동향은 복지관광이 미치는 삶의 질, 문화복지 프로그램(템플스테이), 문화복지정책, 복지관광증진을 위한 전략, 복지관광 참여만족도,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관광객과 지역민을 위한 소득창출과 지역발전을 대상으로 한 전통유산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교문화유산 중 향교, 서원, 누정건물을 대상으로 관광 및 문화복지 전반의 경향을 살펴보고 관광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수립 및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와 누정의 역사적배경은 어떠한가?

둘째, 유교와 누정의 주요건물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유교와 누정의 관광문화복지 활용실태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유교와 누정의 역사적 배경

유교는 고려 말기 중앙의 권문세족에 대항하여 등장한 지방의 사대부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이들로, 고려사회의 개혁을 주장하다 결국 조선을 건국하기에 이른다. 당시 불교국가인 고려와는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했던 사대부는 중국으로부터 유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8]. 이로써 유교[9]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 계층에게 삶 자체이며, 국가의 기본 원리가 된다.

향교는 조선시대에 공자와 그 제자들을 봉사하고 또 지방양반 자제들의 교육을 주로 담당하였던 곳으로 고려사의 인종 5년 3월 조제주입학이광교도(詔諸州立學以廣教導)라는 기록에 의해서, 고려 인종 5년(1127)에 처음으로 향교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0].

서원은 선현을 봉사하는 사와 자제를 교육하는 재가 결합되어 성립된 조선시대의 사학 교육기관을 말하는데[11], 이 서원이라는 명칭은 신라말기의 기록과 고려시대의 문헌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누정은 언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1 시조 동명성왕 10년 추 9월조에 “난새가 왕대에 모였다”고 하였으니 누정건축의 일종인 대(臺)가 이미 고구려 초기부터 건립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2].

2.2 유교와 누정의 주요건물

유교건물 중에서 향교와 서원의 일반적인 구조는 외삼문(루각), 동·서재, 명륜당, 내삼문, 동·서무, 대성전(사당)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대성전(사당)과 명륜당을 기준으로 전당후묘, 전묘후당, 좌묘우학, 좌학우묘로 크게 분류하고 있으며, 이밖에 다양한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누정은 일반적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인공환경을 이루고 있는 곳에 지어 누마루에 올라 주변 경관을 완상하면서 쉬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산정(山頂)이나, 언덕, 냇가, 강가, 바닷가, 연못가

등에 건립한다. 그리고 정자는 사대부가의 후원 동산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정(山頂)에 짓는 경우, 넓은 들판에 세우는 경우, 연못가에 세우는 경우, 냇물 가에 세우는 경우, 바닷가에 세우는 경우 등을 찾아볼 수 있다[12].

2.3 관광문화복지

관광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 등이 보존되거나 스며들어 있는 지역 또는 사람이 풍요로웠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관광이란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해서 이행되는 관광으로 현지문화를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것이다[13]. 이제는 하나의 사회현상이고 이는 곧 관광문화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가 관광자원으로 인식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문화가 국가 전략자원으로 인식된 2000년대부터 부쩍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유형의 자원을 둘러보는 과거의 관광개념에서 무형의 문화가 관광자원의 한 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21세기를 디지털 문화시대라고 일컫는다. 이는 글자 그대로 첨단산업과 연계되어 문화관광의 영역을 넓혀 놓았으며, 그 문화는 국가전략자원화 하면서 관광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 관광은 기존의 전통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에 무형의 문화자원이 더해져 문화관광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접근은 문화를 매개체로 한 한국관광산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문화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13]. 그러므로 유·무형이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성을 가지면 관광문화복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3.1.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월향교와 창절서원 그리고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는 자규루, 금강정, 배견정, 요선정을 중심으로 건축적 및 지역적 특이성이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건물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 하였다.

3.1.2 조사방법

조사는 연구대상 영월향교와 창절서원 그리고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는 자규루, 금강정, 배견정, 요선정을 현장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건물 소유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유교건물의 관리주체, 설립연혁의 주요내용과 특징, 현재 전반적 관광 및 운영실태, 주요건물의 실태와 특징현황과 보완점 등을 파악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4년 6월 13일부터 11월 7일 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척도문항을 관련이론을 기준으로 객관성을 갖도록 개발하였다. 그리고 과학적 탐구과정을 거쳐서 판단하고 분석하였다.

3.2 연구설계와 가설

3.2.1 연구설계

유교건물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관광과 문화복지의 상생발전 전반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및 보완 그리고 발전방향 제시하여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를 높이고자 한다.

3.2.2 연구가설

관광객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관광 및 문화복

지 프로그램의 구축에 따라서 관광객의 삶의 질과 만족도의 증가와 지역발전 그리고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회적 관광문화복지 이미지 구축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3.3 연구도구

3.3.1 역사적 배경

유교건축의 역사적 배경 척도기준은 조원섭[1,2]의 이론을 바탕으로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유교건축의 조성배경을 중심으로 유교, 향교, 서원, 누정의 의미와 역사적 발생과 유래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교건물에 대한 전반과 특이사항을 조사하고 답하도록 하였다.

3.3.2 주요건물현황

유교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건물현황의 조사도구는 조원섭[1,2]의 이론을 기준으로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건축의 보전관리를 중심으로 현상파악을 위해 배치, 건축형식, 구성요소, 건립연대, 문화재 지정 현황과 보전관리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통건축의 구성건물과 연구는 계획적 측면에서의 공간배치나 의장적인 측면 및 형태분류에 근거한 건축양식에 대한 전반을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3.3.3 관광문화복지

조사대상 6개 유교건물의 척도는 대성전, 사당, 명륜당, 풍화루, 양무, 양재, 삼문, 누정을 바탕으로 관광 및 실태를 파악하였다. 여기에 김윤우, 권경임, 신정식, 엄완용[4,5,6,7]의 복지관광과 프로그램, 발전방안, 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역 유교건물의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역중심의 관광 및 문화복지를 위한 자원화방안 전반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조사하고 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역사적 배경 분석

유교건물(향교, 서원, 누정)의 조성배경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1 영월향교

지방 유형문화재 제 100호로 조선 태조 7년(1398)에 창건하였으며, 성종 4년(1473)에 번와를 하였고, 선조 때 개축과 중수 및 증창을 하였다. 이어 광해군 9년(1617)에 개조를 하였고, 인조 12년(1634)에 번와를 그리고 숙종 3년과 정조 19년에 각각 중수를 한 후 순조 25년(1825)에 중건된 건물이다.

4.1.2 창절서원

지방 유형문화재 제 27호로 조선시대에 건립한 사우이며, 숙종 11년(1685)에 강원도 관찰사가 단종의 사우가 협소함을 조정에 보고하면서 증축을 간청하였고, 이에 따라 숙종은 영월부사에게 사우 옆에 사육신사를 세우게 하였다.

4.1.3 자규루

영월군수 신숙근이 세종 10년(1428)에 창건하여 매죽루라고 하였으나, 후에 단종이 이곳에 거처하면서 누각에 올라 자신의 고뇌를 '자규사' 및 '자규시'로 읊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이름이 자규루로 바뀌었다고 한다.

4.1.4 금강정

세종 10년(1428) 김부항(金復恒)이 창건하였고 이자삼(李子三)이 영월군수로 있을 때 금강정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송시열의 「금강정기」에 의하면 이자삼이 부임하여 낚은 정자를 새로 지으려 하자 강원감사인 어익지(魚翼之)가 도와 완성하였다고 한다.

4.1.5 배견정

사육신 박팽년의 혈손 박기정이 1792년에 창건하였고 1990년에 건립된 박충원 정여각 동편 약 3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단종이 죽자 동강에 몸을 던져 단종의 뒤를 따른 시녀들의 뉘이 두견새가 되어 이곳에 찾아와 단종을 배알하던 곳이라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4.1.6 요선정

남한강의 한 갈래인 주천강 상류, 풍경이 아름다운 강가에 자리하고 있으며, 요선암 이라고도 불린다. 1915년 이곳 주민들이 정자를 세우고 주천청허루에 보관되어 오던 숙종의 친필시를 이곳에 모셨다.

4.2 주요건물 분석

유교의 주요건물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영월향교

영월향교는 평지에 가까운 경사지를 서향으로 2단 정지한 후 그 첫째 단에는 일반적으로 배치되는 외삼문 대신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문루형식의 팔작기와지붕으로 된 풍화루를 배치하여 외부와의 경계를 구획하고 있다.

이루를 지나서 강학공간에 들어서면 좌우에는 유생들이 공부하고 숙식하는 동재와 서재가 배치하고 있고 이 양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평면에 맞배기와지붕의 된 민도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쪽의 중앙에는 높게 축조된 자연석 기단상에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된 팔작기와 지붕의 명륜당이 위치하고 있다.

다시 그 뒤로 2단의 자연석계단을 오르면 정지된 둘째 단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기와지붕으로 된 소슬삼문 형식의 내삼문이 공간을 구획하고 있으며, 이 내삼문을 지나면 제향공간이 나오고 그 좌우에는 동무와 서무가 각각 놓여있다. 이 양무 역시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기와지붕으로 된 민도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뒤편 중앙으로 3단

의 장대석 다듬돌 계단을 오르면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기와지붕으로 된 대성전이 풍화루, 명륜당 그리고 내삼문과 직선축을 이루며 놓여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향교의 일반적인 형식인 전당후묘의 배치를 따르고 있고 직선축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2.2 창절서원

창절서원은 평지를 남서향으로 2단 정지를 하여, 첫째 단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문루형식으로 꾸민 팔작기와지붕의 배견루가 배치되고 있는데, 루의 1층은 3칸에 모두 쌍여단이 판장문을 달아 외삼문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2층은 루로 구성되어 유생들이 풍수와 사색 및 여가를 보내는 장소로 구성 되어있다.

이 배견루를 지나면 강학공간 좌우측에 정면 4칸, 측면 1칸의 동재와 서재가 맞배기와지붕의 민도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뒤로 배견루와 중심축을 이루며, 높이 80cm의 자연석기단상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강당이 팔작기와지붕으로 축조되어 있다.

다시 그 뒤로 2단의 자연석계단을 오르면 정지된 둘째 단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기와지붕으로 된 소슬삼문 형식의 내삼문이 놓이고 그 좌우측으로 사괴석을 둘러 묘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 내삼문을 오르게 되면 문묘 공간 좌우측에 대청으로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기와지붕으로 된 민도리의 동서 양무가 그리고 그 뒤쪽 중앙에 높이 60cm의 자연석기단상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기와지붕으로 된 사당이 내삼문과 강당 그리고 배견루와 중심축을 이루며 놓여있다.

따라서 이 서원은 일반화된 형식인 전당후묘의 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축의 구성은 선축형 중 직선축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3 자규루

자규루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一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는 2층 누각이며, 사방을 관망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아 원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그 위에 익공단부를 두루뭉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초익공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2층의 누각 바닥은 우물마루로 짜여져 있고 벽은 사면이 개방되어 있으며, 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밖에 천정은 연등천정에 제형대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홀처마의 팔작기와지붕을 하고 있으며, 화려하게 단청하여 마감하고 있다.

이 자규루는 기능에 맞게 경관을 보며 휴식과 놀이를 하는 기능, 풍류와 창작을 즐기는 곳, 학문을 수양하고 강학하는 정사(精舍)의 기능, 각종의 회의장소로 기능 등에 맞추어 조영되었으나, 단종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4.2.4 금강정

금강정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一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사방이 개방되어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아 외부에는 원형주를 세우고 내부에는 방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그 위에 초익공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고 있으며, 사면이 개방된 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모든 칸에 높이 40cm로 머름형식의 평난간을 돌렸고 천장은 연등천정의 제형대공으로 구성된 5량 구조이다. 그 밖에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기와지붕으로 조영하고 있고 단청으로 마감하고 있다.

정자건물은 일반적으로 산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금강정은 이에 맞게 경관이 좋은 산의 언덕 위에 위치하여 주변의 절경과 강가를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4.2.5 배견정

배견정 건물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사방이 개방되어 있다.

구성은 다듬돌기단상에 정면은 방형의 정평주초석을 놓고 후면은 원형의 정평주초석을 놓아 각각 원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그 위에 주두를 놓아 초익공형식의 수법을 취하고 있으나, 부재의 끝단

을 직절시키고 있는 특이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내부의 바닥은 우물마루로 구성하고 벽은 사면은 출입부분을 제외하고 높이 30cm의 평난간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천장은 연등천정의 홀처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사모기와지붕을 하고 있고 화려하게 단청으로 마감하고 있다.

이러한 정자건축은 일반적으로 산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배견정은 이에 맞게 장릉의 능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장릉입구의 언덕에 위치하여 주변 산세의 절경과 조화를 이루며, 조망할 수 있도록 축조 되어 있다.

4.2.6 요선정

요선정 건물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一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사방이 개방되어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아 원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그 위에 익공을 구성하고 있는 연등천정의 겹처마로 지붕은 팔작기와지붕을 하고 있고 화려하게 단청으로 마감하고 있다.

이러한 정자건축은 일반적으로 산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요선정은 이에 맞게 경관이 좋은 산의 언덕 위에 위치하여 주변 산세의 절경과 강가를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며, 정자 앞에는 5층의 청석탑과 마애여래좌상이 바위에 새겨져 있어 한층 정자건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4.3 관광문화복지 활용 분석

현재 영월군은 지리적으로는 강원남부 내륙관광의 중심도시로 역사,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료관광객 300만명 유치에 힘을 쏟고 있으며, 농촌경쟁력강화와 쾌적한 도시 및 맛과 친절의 도시로의 특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유교문화유산으로는 향교, 서원, 사우, 누정, 정려, 재실, 가묘건축 등이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지역민의 정신사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활성화는 아직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도 역시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월에 대한 역사와 관광자원에 유교건물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사고와 생활방식의 문화적 토대구축,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전통문화의 계승이 요구된다. 즉 역사와 자연관광자원에 유교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여기에 박물관과 지역축제문화 등의 다양한 관광관련행사를 접목해서 관광객 유입과 지역민 소득창출을 위한 사회적 관광문화복지 도시로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향교, 서원, 누정건물의 관광 및 문화복지를 위한 상생발전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건물 각각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유교의 기본적 교리를 수용하면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구성되어 있다. 영월향교, 창절서원, 자규루는 지방유형문화재이며, 조선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규루와 배건정은 청령포에 유배된 단종의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며, 경관이 아름답고 강가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정과 요선정은 귀중한 지역문화유산이다. 이 결과 우리지역의 유교건물은 [1,2]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확실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지역의 전통유교건물은 역사적 근간이나, 문화재적 가치로 매우 귀중한 지역의 문화자산인 것으로 이를 사회적 관광문화복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교건물의 주요건물에서는 향교와 서원에서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누정건물에서는 보기 드문 특색을 각각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자규루는 기능에 맞게 경관을 보며 휴식, 놀이, 풍류, 창작을 즐기는 곳으로 2층의 누각이며, 단종이 승하하신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고 금강정은 주변의 절경과 강가를 조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배건정은 단종이 죽자 동강에 몸을 던져 단종의 뒤를 따른 시

녀들의 넋이 두견새가 되어 이곳을 찾아와 단종을 배알하던 곳으로 주변 산세의 절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요선정은 숙종의 친필시가 모셔져 있으며, 그 주위에 5층의 청석탑과 유형문화재인 마애여래좌상이 바위에 새겨져 있어 한층 누정건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 결과는 김윤우, 권경임, 신정식, 임완용[4,5,6,7]의 복지관광과 프로그램, 발전방안, 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역 유교건물의 관광문화가 요구되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는데,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유교건물만이 지니고 있는 특색 즉 향교, 서원, 누정건물을 활용한 사회적 관광문화복지 자원으로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관광 및 문화복지 활용에서는 유교건물은 제향중심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교와 선비문화유산의 재해석 차원에서 현재 향교와 서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즉 선비정신, 예절교육 등을 위한 교육 및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유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유교와 선비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내·외 홍보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그리고 누정건물은 충효의 상징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충효정신 함양을 위한 관광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화재적 가치와 사상적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는 김윤우, 권경임, 신정식, 임완용[4,5,6,7]의 관광 및 문화복지 활성화와 일정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 의미는 관광 및 문화복지를 위한 상생발전을 위하여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자원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영월의 다양한 역사·전통문화와 관광자원 그리고 전통유교유산을 연계한 각종 체험, 축제, 전시, 행사,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관광문화복지 이미지 부각시킨다. 그리고 우리지역 유교건물의 문화가치를 재해석하고 이를 재조명하

여 사회적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토대로 전통유교 문화와 현대문화를 아우르는 디지털관광으로의 발상전환이 시급하다.

5. 결론

이상의 연구에 따른 결론과 향후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건물은 역사적 근간이나, 문화재적 가치로 매우 귀중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문화자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문화복지 스테이를 통하여 유교문화 역사적 배경과 단종의 이야기를 되살려 관광과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여기에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상생발전 관광문화복지 코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향교와 서원은 전통적인 유교문화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누정건물에서는 보기 드문 특색을 각각 나타내고 있어 문화복지의 향유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지역의 특화된 사회적 관광자원화가 요구된다. 즉 향교, 서원, 누정 스테이를 통하여 전통유교문화 체험교육장과 유교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위계문화중심의 유교생활상 재현프로그램(선비정신교실, 전통예절교실, 다도교실, 제례교실, 정신수양 힐링캠ป์, 유교건물 산책)을 운영한다.

셋째, 유교유산에 대한 관광문화복지 자원화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 파악 되므로 이들의 문화재적 가치와 사상적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강화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즉 향교와 서원 그리고 누정건물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복지 행사장(한문교실, 서예교육, 국악교실, 노래교실, 청소년인성교육, 향토문화교실, 전통문방공예교실, 한시대회, 백일장대회, 민속경연대회, 학술세미나, 각종문화공연)으로의 활용이 요구된다.

향후 유교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유교문화와 현대문화를 아우르

는 디지털관광으로의 발상전환이 시급하다.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할 때 지금보다 많은 지역의발전과 소득증대 및 관광관람객을 유치하는 상생의 사회적 관광문화복지가 구현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Won-seob Jo, "Study on the Confucius Architecture of Youngwol", Youngwol Technical College Journal, Vol. 4, pp.129-145, 1997.
- [2] Won-seob Jo, Dalhoon Lee, "A Study on the Spatial Hierarchy Responding to the site in Hyangkyo Architecture.", Korea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ol. 10 No. 5, pp.35-43, 2003.
- [3] Soonam Choi, "The Influence of Social Tourism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Hanyang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4.
- [4] Yoonwoo Kim, "Study of the Influence of Social Tourism on the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Vol.29 No.5, pp.475-500, 2014.
- [5] Gyeongim Kwon, "Study on Temple Stay as Cultural Welfare Program", The Association of Global Social Welfare, pp.79-108, 2011.
- [6] Jeongsik Shin, "A Study on The Strategic Development Policy in Tourism Business", Korean Welfare Administration Society, Vol.14 No.2 pp.154-174, 2004.
- [7] Wanyong Um, "Study on th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Welfare Tourism Participants",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Vol.27 No.5, pp.371-387, 2012.

- [8] The most important belief of the Confucianism is the royal politics, which bases on the benevolence and the virtue. In particular, during the days of King Sejong, Jiphyeonjeon was established to realize the Confucius democracy and Uijeongbo Seosaje (prime minister-centered bureaucracy) was used as the political frame, while a prime minister was appointed to make a harmonious politics in which the royal power and the divine power are in balance.
- [9] Confucianism of Joseon Dynasty is considered as Neo-Confucianism, which recognizes the cosmic universe as it is, while seeking chido (way of ruling) in the human world. It promotes the establishment of royal authority through 'Sugichiin (修己治人: governing others after one cleanses his body and mind).
- [10] History of Goyeo, Vol. 74, No. 28 Seongugo Haktyojo.
- [11] Jangsub Yoon,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Gimoondang, p.216, 1990.
- [12] Kyutae Kim,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Vol. 3 Nujung Architectur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pp.28~30, 1996.
- [13] Yongjun Cho et al. , "Cultural Tourism Resource", Daewangsa, pp.18-19 pp.34-36, 2009.

저자약력

오 승 하(Seung-ha Oh)

[정회원]



- 2012년 2월 : 극동대학교 사회 복지학과(석사)
- 2015년 8월 :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육학과 사회복지상담전공(교육학박사)
- 2014년 3월~현재 : 세경대학교 미술치료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한부모가정, 노인의 성, 노인상담, 산학융합, 바이오IT

조 원 섭(Won-seob Jo)

[정회원]



- 2004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건축공학과(공학박사)
- 1997년 3월~2015년 2월 : 세경대학교 건축과, 박물관과 교수
- 2015년 3월~현재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관심분야>

전통건축, 문화재, 주거복지, 건축디자인, 산학융합, 바이오IT